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길 위의 인생, 또 다른 여정을 찾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시간 강의를 하려고 왕복 열 시간 이상을 거리에서 보내는 날이면 마중 나온 분들이 내게 하는 인사다. “나라도 크지 않은 데… 그리 먼 길도 아니고 즐겁게 온 걸요.” 이렇게 답하면,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라며 상대방도 공명의 파장을 전해 준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을 제외한 세계여행 자유화가 가능해지면서, 분단된 한반도를 벗어나 광활한 대륙 중국을 비롯해 이웃 마을 가듯 국경을 넘나드는 유럽 대륙 여행도 가능한 시대를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의성도서관과 하동도서관을 다녀온 날들도 ‘길 위의 날’들이었다. 국가 경제력에 비해 떨어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내건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그 파장을 타고 평생 처음으로

가 보는 산속 마을 도서관, 정겹게 맞아 주시는 지역 분들과 영화로 나누는 인문학 공부길이 이젠 내겐 ‘길 위의 여정’ 즐기기로 변모하는 중이다.

오가는 여정, 기차나 고속버스 안에서 ‘멍 때리며’ 바깥 풍경 감상하기, 강의 내용 떠올리며 어떻게 재미있게 꾸러갈까 궁리해 보기, 그러다 지치면 는 감고 휴식의 즐거움에 젖어 들기, 그러노라면 절로 그려지는 ‘로드 무비’ 영화들, 곧 ‘길 위의 인문학’이 ‘길 위의 영화’ 코드로 연결된다.

이틀테면 ‘델마와 루이스’(Thelma & Louise, 1991, 리들리 스콧)의 몇몇 이미지들이 번쩍 떠오른다. 오랜만에 같이 여행을 떠나는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루이스(수잔 서랜든), 이 두 여성이 오픈카를 타고 머물러 날리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은 쾌활함 자체로 빛난다. 반복적 일상으로부터의 탈주, 자유롭게 살아 보기, 거기서 느끼는 해방감 …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 여행을 꿈꾼다. ‘로드 무비’란 장르가 인기 있는 이유도 그 점을 활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남성 짝패나 ‘두 남성과 한 여성’이라는 삼인조 관습을 깨고 등장한 ‘델마와 루이스’는 희귀한 여성 로드 무비의 상징적 작품이기도 하다.

남편 허락을 받기 힘들어 여행을 떠나고파도 못 떠난다는 델마에게 루이스는 “네가 어린애냐?”라며 일갈을 날린다. 거기에 자극받은 델마는 남편 허락 없이 여행길을 떠난다. 당당하고 능동적인 루이스와 늘 감자에게 기대고 살아온 델마의 동행이 성추행 사건이 거어지면서 계획된 여정은 급변한다.

여독을 풀러 잠시 들린 술집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델마에게 벌인 성희롱이 충격 사건으로 터져 버렸기 때문이다. 탈주행으로 바뀐 이 여정에서 델마는 이렇게 고백한다. “난 너와 이렇게 같이 할 때 기분이 최고야.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라고. 이 대목은 길 위의 변화에 주목하는 로드 무비의 클라이맥스를 보여 준다. 로드 무비의 매혹은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변화 과정인데, 그것은 ‘영웅 되기’ 과정인 신화적 여정으로부터 내려온 고대적 의식이기도 하다.

최근 화제를 모으며 여음맛이처럼 연이어 개봉되는 다큐멘터리들은 주로 ‘로드 다크’로 공명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양이가 귀신의 형태로 둔갑하는 공포영화를 가진 한국에선 ‘길냥이’가 죽어 나간다. 그러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2017, 조은성)는 고양이와 인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한국-대

만-일본을 오가는 로드 다크로 대안적 삶을 보여 준다.

대한민국 서울, 천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중 2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길냥이들은 인간을 피해 숨어 지낸다. 그러나 같은 동아시아 지역인 대만의 ‘허우퉁’은 연간 50만 여행객이 찾는 길냥이 마을로 유명하다. 길냥이 사진 찍기에 매혹된 한 여성 작가의 기지로, 폐광촌으로 몰락해 가는 마을에 이런 대안적 번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한쪽엔, 세계 6대 고양이가 마을로 쫓히는 일본의 ‘아이노시마’도 있다. 거주민보다 많은 숫자의 고양이가 사는 이 작은 섬에도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고양이를 보러 오는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나온 ‘직지’라는 심증을 갖고 유럽 5개국 7개 도시를 누비는 추적 여정의 ‘직지코드’(2017, 우광훈, 데이비트 레드만)도 세계의 길로 나가는 ‘로드 다크’이다. 아픈 역사의 파고를 진혼무로 풀어내며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는 ‘바람의 춤꾼’(2017, 최상진)역시 ‘로드 댄스 다크’이다. 이렇듯 길 위의 여정은 뜨거운 태양 빛조차 즐겨야 하는 여름살이 여정이기도 하다.

NGO칼럼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의 또 다른 이름은 ‘답정너’

지난달 8일 장위구 광주시교육감이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될 만큼 시교육청 정책과 교육공 공약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넘쳐났다.

그동안의 교육청 성과로 학교 청렴성 강화, 교실수업 질적 향상, 학교와 마을의 협치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고, 올해 논란이 되었던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의 소통부족도 교육감이 스스로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공식적으로 평가할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단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로 지난 3년을 정리하기엔 혹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영어전담회화강사 고용승계 문제, 보

건교사 업무분장 문제, 유치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 세광학교 감사 문제 등.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기서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주장들을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교육청이 이 주장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를 더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이하 학벌없는사회)에서 교육청을 비판한 최근 현안들을 돌아해보면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 시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예컨대, 고교 기숙사생 선발 문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 선행학습 광고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제한 문제 등에서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더라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옥역어도 멧집이 좋은 건지, 시민단체를 대꾸할 상대로 보지 않는 건지, 교육청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때로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최근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

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마찬가지. 수일간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집회도 진행해왔지만,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유지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모든 출입구를 걸어 잠금 청사 통행을 제한해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이나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다수의 목소리를 증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청은 자신들만의 원칙을 근거로 학교통폐합과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을 추진했다. 그야말로 교육청이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고 내 대답만 하면 돼)’를 자처하고 있다.

현재 학벌없는사회가 3주째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청 태도와 연관이 있다. 광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기숙사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학벌없는 사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교육청은 개선은커녕 철면피처럼 버티고 있어, 결국 거리로 나와 파켓을 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노동조합이든 간에 문제 제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힘에 부쳐 문제해결을 포

기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교육청은 학벌 없는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 꼴에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요즘 관련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광주지역의 공공기관 중 교육청이 보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저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시민들을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즉 시민들은 교육청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되묻고 싶다.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단체와 협력할 생각은 있는지, 또한 교육청을 비판하는 누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싸워왔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은 교육청에 수준 높은 협력과 소통을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그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에게 격려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시 해명하거나 말이라도 들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교육청에 부탁한다.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서로 공존하고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자. 이게 바로 협치 아니겠는가.

社說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폭로 근절하려면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결과 ‘문준용 특혜 채용 증거 조작 사건’은 이유미 씨의 단독법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 “당의 직접적인 개입 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정한 사실을 보여 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등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사실대로라는 것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 내용을 너무 확대해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한편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조작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뒷선에서도(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국민의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국민이 속은 것은 분명해 대비해 국민의당이 과연 속았을까 하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더군다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 일원반구 언급이 없어 당 차원의 ‘꼬리 자르기’란 의구심이 더욱 깊어만 간다. 따라서 과연 어느 선까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허위 폭로가 종종 있었지만 대선이 끝나면 대개 유야무야되고 했다.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은 대부분 취하되기 때문에 허위 폭로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중앙·중외공원 민간개발 재검토 당연하다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숲 파괴와 아파트 건립 등 민간개발을 우려하는 지역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재검토기로 했더니 다행이다. 민간개발(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특성상 고층 아파트 위주의 공원 개발로 ‘도심의 허파’가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재검토 결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광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의 개발 제한이 풀린다. 광주시는 이들 공원 모두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5곳 중 15곳의 부지만 매입하고 10곳은 민간 개발에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녹지 파괴와 온난화, 아파트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광주시가 1차로 수림·마루·송암·봉산공원 등 4곳만 개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오는 10월 제안 접수가 예

정된 중앙·중외·일곡공원, 제3단계 영산강대상·신용·송정공원 등에 대해서는 국도교통부의 입자제도, 타 지역 공공개발방식이나 공모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이 같은 타 지역 사례만 봐도 민간 개발의 폐해나 한계를 알 수 있다. 전 안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이 아파트 건립 위주여서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이다. 대구는 최근 민간 개발을 접고 시 차원에서 직접 공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공원이 그렇지만 특히 중외공원은 광주 최대의 ‘산소 공장’으로서, 중앙공원은 환경문화지구로서의 역사성에 비해 봐도 민간 개발은 적당치 않다. 도시공원은 보존이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민간건설사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제안하는 현재의 제안서 심사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시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마련한 공공성 기준에 따른 공모 방식이 온당하다.

無等鼓

특정 국가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색깔이 있다. 이틀테면 브라질의 노란색, 네덜란드의 오렌지색, 이탈리아의 푸른색 등이다. 월드컵에 출전한 각 나라의 유니폼 색깔에는 국가별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카나리아 군단’, 네덜란드 는 ‘오렌지 군단’, 이탈리아는 ‘아주리 군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아주리’(Azzurri)는 이탈리아어로 ‘하늘색’ 또는 ‘푸른색’을 뜻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

디어한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색깔은 무엇이었나?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악마’의 응원 물결은 신·구세대 간에 전혀 다른 색깔관을 보여주었다. 격동의 시기를 관통해 온 기성세대에게 ‘붉은 색’은 특정 이념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색깔이었으나 젊은 세대에게는 다이내믹한 색깔로 인식된 것이다. 사립에 살고 있는 동물은 사진을 촬영해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다. 특히 이 동물의 Schmutzer 영장류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13만㎡의 면적에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관물입 관람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우치동물원도 이 같은 경관물입 관람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람객이 오히려 동물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경관물입형 관람방법을 통해 관람객이 걸어 다니는 길과 작은 기차가 다니는 길이 구획되어 같은 공간에서 워킹투어(Walking tour)와 기차투어(Train tour)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의 우치동물원을 상상해 본다.

색깔의 언어

외국인들은 당시 ‘붉은 악마’의 응원을 어떻게 보았을까? 조영수 경기도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색채의 연상’을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 교수가 한국인과 미국인 및 독일인 등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색깔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각 나라별로 색깔의 의미가 달랐다. 빨강의 경우 한국인은 ‘열정’을 연상했지만 미국인은 ‘본

노’, 독일인은 ‘위험’을 떠올렸다. 결론적으로 ‘색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의 문화에 의해 이뤄진다’ 하겠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여성 모임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진분홍색 전통 누비옷을 전 주한 미국대사 부인에게 즉석에서 선물해 화제다. 한산모시에 홍화 물을 들어 붉은빛을 내고, 전통 방식인 ‘누빔’으로 만든 옷이라고 한다. 분홍색은 한국·미국인 모두에게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연상시키는 색깔이다. 그러나 한 벌의 옷에 배어 있는 색깔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송기통 여행부장 song@

기고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사파리’와 ‘경관물입’ 동물원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간혹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우치동물원은 왜 사파리동물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사파리 동물원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다. 우치동물원 면적은 축구장 17개 크기인 12만1000㎡에 달한다. 건축면적이 1만2600㎡로 이미 조성된 동물사 사육 환경을 감안하면 별도로 사파리(safari)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다.

원래 사파리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최근에는 자동차를 타고 동물을 관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대표 사파리 동물원은 에버랜드와 오월드가 있다. 에버랜드는 삼성에서, 오월드는 대전도 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월드는 2008년 200억원을 투입하여 2개의 사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와 마운틴 사파리로 3만㎡의 면적에 호랑이와 곰 등을 방사하여 버스투어로 운영하고 있다. 에버랜드도 2개의 사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파리 월드와 로스트 벨리로 사파리 월드는 1976년 조성되어 맹수류 6종의 60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로스트벨리는 2013년 500억원을 투입하여 7만5000㎡에 협곡, 동굴, 폭포 등 각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30종의 300마리를 수륙양용 차량투어로 관람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리 동물원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51년 조성된 이 공원은 광대한 아카시아 수목 사바나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초원을 포함한 총면적 1480만㎡에 이른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직도 육상 동물의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우치동물원의 경우 협소한 지면적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워킹 사파리(Walking safari)가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걸으면서 자연속에 있는 동물을 관람하는 경관물입(Landscape immersion)형 전시(Exhibit)방법을 통해 사파리 공원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경관물입형 관람은 동물의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관람방법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연에 있는 느낌을 주는 전시법이다.

관람객이 방사장을 둘러싼 현재의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동물의 서식지를 재현한 숲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방문객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우치동물원을 경관물입형 전시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민선 6기에 들어서 동물복지를 감안한 예산 투자가 관람객들이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경관물입형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경관물입 관람이 가능한 동물원은 항상 날씨가 따뜻한 동남아시아 동물원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1864년 개원한 인도네시아의 라구란(Raguran)동물원은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면적은 140만㎡로 270종의 3122마리를 보유한 동물원으로 450명 직원의 관리를 받으며 동물들이 울창한 숲 속에서 살고 있다.

산림에 살고 있는 동물은 사진을 촬영해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다. 특히 이 동물의 Schmutzer 영장류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13만㎡의 면적에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관물입 관람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